

중국, 흑룡강성 벼생산량 천만톤 예상

지난 7월 22일 중국곡물홈페이지(中國谷物网)에서는 중국 흑룡강성의 금년도 벼생산량이 천만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도에 의하면 2004년 흑룡강성 벼재배면적은 2,700만무(畝, 1무는 약 200평) 정도로 예상되어 전년에 비해 28.57%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과거 5년평균 단위당 생산량 1무당 411.13kg으로 환산하면 금년도 벼생산량은 1,110만톤으로 예측되며 전년에 비해 31.6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와 같이 생산된다면 흑룡강성 벼생산량은 처음으로 1,000만톤을 돌파하게 된다.

흑룡강성은 토양이 비옥하고 일조량이 충분하며, 일교차가 커서 쌀의 품질이 좋으며, 중국의 중요한 벼생산지역의 하나이다. 또한 전국 최대의 상품벼 생산지이고, 최근 흑룡강성 쌀은 이미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흑룡강성의 2002년 벼 총생산량은 921만톤에 달하고, 동북삼성 생산량의 53%를 차지한다. 생산량중 상품량은 546만톤에 이르며,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한다. 2003년 벼 파종면적은 2,100만무였으며, 843만톤을 생산하였다. 흑룡강성 벼주생산지는 주로 하얼빈, 목단강, 綏化, 佳木斯의 시현과 三江평야 지역이다.

(박은철 parkec@hanmail.net 010-3077-8706 농관원)